

기획

▶ 1면에서 이어짐

이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생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미정원 서경아 부원장은 “우리가 제출했던 계획서의 내용과 교육부가 지향했던 방향이 다소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며 “지표상으로는 선정된 대학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미정원 측은 논란이 됐던 소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전했다. 서 부원장은 “소통은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학생들이 부족했다고 느꼈다면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정원 김종백(사회학) 부원장 역시 “비록 사업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학교와 학생들이 불편한 문제에 대해 마주앉아 서로 간에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며 “프라임사업과는 별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만큼의 속도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밀도있는 소통을 요구했음에도 정작 실질적인 자리에서는 호응이 다소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신 원장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미래정책원과 부총장이 각 단과대학 별로 공청회와 설명회도 개최했으며 공식적으로 62차례, 비공식적으로는 100회가 넘게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참여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라며 “학생들 역시 본인들의 주장에 책임감을 갖고 본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된 다른 학교들은 재정지원을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 역시도 면밀히 수립할 수는 없다”며 “느리더라도 꾸준히 변화해가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학본부는 프라임사업과 함께 진행됐던 ‘Add on track’과 5대 협력 연계클러스터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장을 밝혔다. 미정원 김종백(사회학) 부원장은 “Add on track’ 역시 우리가 이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인 만큼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오는 2학기부터는 구성원의 피드백을 받은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대 협력 연계클러스터 역시 마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신설

위한 교육부 승인 신청 상태

외대 교수, 16일 긴급회의 진행

“소통 부재, 단체 행동 있을 수도”

찬가지다. 클러스터 사무국의 안남일 국장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해서 진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사업 탈락 후, 몇몇 소규모 사업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의 신설과 컴퓨터공학과 추가인원 배치를 위해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공과대학, 외국어대학(외대),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에서 각각 인원을 줄이고 대신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는 60명의 정원이, 컴퓨터공학과는 18명의 인원이 추가 배정된다. 하지만 관련 사업 계획서 제출기한인 20일에 맞춰 다소 급하게 진행되다보니 합의과정에서 인원 조정 문제로 국제캠 구성원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외대 교수들은 이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외대 민관동(중국어학) 학장은 회의에서 소통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 학장은 “갑자기 아무런 말없이 다른 학과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소통과 절차가 부재한 것 같다”며 “이와 관

련해 아직까지 외대 교수님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교수들의 단체 행동으로 이어질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민 학장은 프라임사업 탈락 후 코어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재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대 교수들은 인문학이 위축될까 걱정하고 있다”며 “현재 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코어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정원은 “각 단과대학 별로 줄인 정원이 전자정보대학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한 개의 학과만으로 단과대학을 신설할 수는 없기에 몇 개 학과가 추가로 신설된 후에는 별도의 단과대학으로 분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프라임 사업에서는 공과대학 인원을 이동시킬 수 없었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입학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며 “교육부에 정원 이동 승인 신청 제출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직접 방문해 다시 한 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라임사업 탈락을 두고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입장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교

수의회는 프라임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되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을 통해 교수의회는 “대학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부 지원 없이도 자체 역량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프라임사업 선정 탈락과 향후 대책에 대한 총장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교수의회는 “자구적인 재원조성, 학사구조와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한 안정된 대학재정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신 말미에는 “프라임사업 선정 탈락이 구성원 간 불화와 갈등, 책임회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학교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학본부 뿐 아니라 교수와 학생, 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빠를 깎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도 프라임사업 탈락 이후 학교의 프라임사업 원안 진행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정주희(사학 2012)회장은 “정책투표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학생회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했다”며

201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일시	장소	대상
2016.05.27(금) 10:00~17:00	예술·디자인대학 415호	외국인 학부생·대학원생

	시간	프로그램	내용
1부	10:00~10:30	개회사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30~12:00	적성검사 분석	자기이해 및 직업유형 파악
2부	12:00~13:00	점심	학생식당
	13:00~14:30	채용서류 작성법	채용과정의 이해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14:30~15:00	휴식	간식제공
	15:00~16:30	취업전략 강의	글로벌 취업전략 (외국인유학생 취업기법·업종)
	16:30~17:00	수료식	만족도 조사 및 기념촬영

신청 및 참가비

- 신청 : 학교 및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참가비 : 무료(중식 및 간식, 기념품 제공)
- 모집기한 : 5월 25일(수)까지

문의 : 031-201-3961, hannadi0223@knu.ac.kr

국제캠퍼스 국제교류처



2016학년도 1학기 교수법 특강 안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교수님들의 Teaching 능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주제로 교수법 특강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新

강풍법: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

- 주의 집중을 위한 스핏 기법
- 학생 참여형 교수 기법
- 수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인드 셋업

일시 2016.05.24.(화) 12:00~13:30

장소 멀티미디어관 112호

강사 김성학 (예수웨이 대표)

대상 경희대학교 교원 전체

신청기한 2016년 5월 23일(월)

주최/주관 교수학습지원센터(국제) ☎ 031-201-3954

※ 문의 : 김희정 선임연구원 Tel. (031) 201-3950~5, 학생회관 111호

경희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